

## 戰爭과 판매부진으로 2重苦를 겪고 있는 이란의 석유산업

이란의 석유생산, 판매, 정제, 탐사 등을 관장하고 있는 NIOC(이란石油公社)는 戰時下의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大支柱다. 그러나 이라크空軍機의 잇달은 폭격으로 주요선적기지인 하르그섬이 피해를 입어, 中東최초의 국영석유회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NIOC는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석유수출에 있어서도 금년 여름부터 그때까지의 할인판매를 자축, 가격인하에 신중한 경직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석유수출공세 등으로 시장을 빼앗길 지도 모르는 상태다.

NIOC는 세계적인 석유수급의 완화와 가격하락 등으로 석유판매에서 고전해 왔다. 82년 이후 석유의 高價格정책을 전환, 가격인하를 시작하는 한편 수입물자의 대금을 原油로 지불하는 原油바터거래나 대응수입방식(Counter Purchase)의 도입 등에 의해 거래선의 확보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이 결과 이란原油는 「5重價格制」라고 불리운다. 공식판매가격(이란라이트 : 배럴당 28.05달러)에 시장의 실제가격을 참고로 한 스포츠價格, 또한 공식판매가격과 스포츠가격을 組合한 바터原油가 있다. 이외에 지난 6월부터는 3~4 달러를 인하한 네트백방식을 歐美수출용에 적용했다. 이러한 물량은 50만b/d를 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의 석유파이프라인을 봉쇄한 시리아에 대한 無償原油(2만b/d), 기타 契約原油(6만b/d)도 공식판매가격보다 2.5달러가 싼 가격이다.

가라지石油相에 의하면 이란의 84년도(84. 3 하순~85. 3 중순) 석유수출은 167.6만b/d, 石油收入은 약 170억달러로 200억달러 목표를 15% 하회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수출량도 늘려 잡았고 가격인하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150억달러가 채 못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5월 NIOC국제부문의 책임자인 호나르 도우스트씨(石油省次官을 겸임)가 돌연 경질되고 미르사이에서가 취임했다. 國會의 석유위원회와 종교계일부터 석유판매가격이 너무 싸다는 비판이 일어, 판매부진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 首腦人事를 계기로 NIOC의 가격정책은 시장의 실

세에 맞추었던 유연한 자세에서 가격인하에 매우 신중한 「安全重視」의 경직적인 자세로 일변했다. 따라서 스포트거래는 감소추세에 있다. 6~8월에는 150b/d 정도의 수출이 지속되었으나 네트백契約이 끊어진 11월 이후에는 수출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란국내의 석유수요는 약 70만b/d로 혁명전보다 40%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제능력은 이란최대의 아바단정유공장이 이라크軍의 공격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테헤란정유공장등 56만b/d정도, 따라서 南에멘의 아텐정유공장에 약 6만b/d 위탁정제하고 있으며 약 10만b/d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최근 국내정유공장의 가동률이 향상됐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완전자금을 위해서는 현재 건설중인 아라그정유공장(정제능력 20만b/d)이 완성될 때까지(90년경)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또한 NIOC는 혁명후의 기술자부족 등에 따른 油田老朽化문제도 안고 있다. 그래도 현재의 생산능력은 혁명전의 600만b/d에는 미치지 못하나 300만b/d를 유지, OPEC의 생산쿼터(230만b/d)에는 아직 여유가 있다.

현재 NIOC의 최대 관심사는 하르그섬 對策이다. 북극작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한편 國회가 승인한 샤를船 구입예산(2억6천만 달러)을 사용하여 T棧橋用的 소형탱커의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동시에 하르그섬 근처의 해상에 假設棧橋를 부설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석유시장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經由의 파이프라인 완성으로 수출능력이 향상된 이라크가 싼 가격으로 판매공세를 벌이고 있으며, 아주 최근 약 12만b/d의 尙日원유판매에 성공, 이란의 시장을 침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란도 경직적인 가격정책의 재검토를 서두르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NIOC의 고비는 깊어지고 있다. \*

